

Clubber Story



꿈꾸는 어와나

My name is JiSoo Kim. I attend Jang Seok church. I Went to church from baby lead a religious life with my grandparents, parents, and brother. I am a member of the church choir. All of my family members are busy on Sundays— my brother and I serve as choir members and my parents are Sunday school teachers.

안녕하세요 저는 장석교회 다니는 6학년 김지수입니다. 저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그리고 하나뿐인 형이랑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소년2부 성가대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족은 주일이면 모두 바쁘답니다. 저와 형은 성가대, 엄마 아빠께서는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하고 계십니다.

제가 어와나와 만나게 된 것은 초등학교 3학년 때 우리 교회에 어와나가 생기면서 교사로 봉사 하시게 된 부모님의 강압적인(?) 추천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어와나가 그동안 늘 꿈꾸어왔던 교육이라면서 저와 형을 T&T 클럽에 입단 시키셨습니다. 친구들과 신체활동하면서 밖에서 노는 것을 무척 좋아했던 저는 그다지 내키지 않았지만 게임 시간이 있다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복병을 만났습니다. 어와나에는 재미있는 게임 시간과 함께 제가 힘들어하는 말씀 암송이 있었습니다. 게임시간만 있으면 재미있을 텐데 말씀 암송이라니!! 앞에 한줄 외웠나 싶으면 1초도 안되어 잊어버리기를 반복하면서 힘들어하는데 형은 너무나 잘 외우는 것입니다.

다행히 집에서 부모님이랑 형의 도움으로 점점 암송하는데 자신이 생겼고 노력에 노력을 해서 지금은 핸드북 4권을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인간 승리입니다. 생활 속에서 순간순간 어와나 에서 암송한 말씀이 기억나고 나를 지켜 나갈 때 제 자신이 대견하고 놀라기도 합니다. 아마도 제 신앙이 잘 자라나고 있나봅니다.

이렇게 말씀이 저를 지탱해 주는 중요한 것이 되었으니 더욱 열심히 노력해서 졸업하기 전에 멋지게 끝내려고 합니다. 게임시간은 너무나 신나고 재미있습니다. 성격이 급하고 욕심 많은 저를 규칙과 규율 칭찬과 격려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어와나 클럽에서 배운 구원과 훈련, 규칙과 격려를 바탕으로 주변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하나님의 멋진,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노력하겠습니다. 장석교회 어와나 클럽 친구들 모두모두 열심히 하자 화이팅 ^^

I came to know Awana when it was introduced to our church, when I was in third grade. I joined because of a compelling “recommendation” from my parents, who came to serve as Awana leaders.

My parents told my brother and me that Awana was the ideal education which they always dreamed of for us, and made us join T&T. I resisted at first because I wanted to play with my friends outside and did not know there would be a game time. However, I realized I had fallen into a trap— memorization time. Awana has two parts— the fun game time and the difficult handbook time. I would forget a line only one second after I read it, while my brother memorized amazingly well!

Fortunately, I got my confidence back after getting help from my brother and parents. After a lot of hard work, I am now doing my fourth handbook. For me, this is a victory. In my daily life, I feel proud and surprised when I can remember verses I memorized before. I hope my faith has a good foundation and is maturing.

God's word has become an essential part of my life, and even now I am trying hard to finish strong before I graduate T&T. Game time is really fun, and has helped me grow as a person. I changed from being jealous and headstrong to encouraging others and following the rules.

I will pray and try to be a worker who is not ashamed and is a good influence on others, based on the rules and training I learned from Awana.

Let's keep working hard, all Awana children at Jang Seok Church!



Awana

영작 : 허인경 기자

